

THE CHURCH IN TORONTO

열 두 광주리 가득히 아침부흥 제 20 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008년 6월 9일 ~ 6월 21일

제 1 부: 성경 말씀과 찬송

찬송: 110, 351, -, -, 484 (영 127; 468; 906; 1278; 662)

성경: 요한복음 14:1-31; 15:1-27; 16:1-33; 17:1-26

제 2 부: 계시와 진리를 위한 아침부흥

제 20 주 :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 ☞ ☞ ☞ ☞ 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에베소서 2:13-14<sup>상</sup>, 16

- 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와  
졌느니라
-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
-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  
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 고린도전서 12:12

- 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  
도도 그러하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그리스도의 몸의 영적 구성

이제 실제적인 측면에서 몸의 지체로서 나를 조성과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주께서 나에게 몸에 관한 계시를 주신다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 이겠는가? 단순히 내가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거나 내가 전에 가지지 못했던 어떤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혁명적으로 될 계 시인가? 그 계시를 내가 교리로서 가르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나에게 진실로 주관적인 것이 되고 내 안에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낳게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이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계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 신한다. 무엇인가 반드시 일어난다.

무엇이 나를 몸의 지체로 조성케 하는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 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나를 조성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그와 같은 사실

이 나를 내가 되게 하고 나를 실질적으로 몸의 지체로서 만든다. 물질적인 예로서 내려가는데 괜찮다면 떡 덩어리를 다시 기억해 보라.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아니며 사람, 즉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여러분의 어떤 부분도 아니다. 그것은 그 모양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떡 조각은 몸의 지체인 여러분을 조성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이다. 바울이 말한 것은 문법적으로나 영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전 12:12). 우리 가운데 일부는 그의 말을 고치고자 할지 모른다. 문법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그것은 잘못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해야 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도 그러하니라.’ 그는 다만,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말했다. 따라서 머리가 그리스도이며 몸이 그리스도이다. 들-머리와 몸-모두 그리스도이다.

마찬가지로 몸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그 몸을 조성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든지 몸에 들어갈 수 없으며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덧셈’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뺄셈’의 문제이다. 그것 모두가 어렵다. 이것은 여러분을 한 지체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체험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지체이며 따라서 많은 것들이 없어져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그 몸의 영적 조성을, 그 몸의 하늘에 속한 것을, 그 몸의 신성함을 본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거기에 덧붙여질 수 없음을 보게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도 몸 안에 있을 수 없다.

☞ ☞ ☞ ☞ ☞ **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요한복음 14:20, 23**

- 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 **갈라디아서 2:20上**

-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십자가의 장소**

그곳은 십자가가 들어온 곳이다. 그것이 왜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이다. 십자가는 실질적인 외부일이며, 십자가의 원칙은 우리 자신에 속한 어떤 것—몸 안에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을 유일하게 제거하는 신성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를 많은 것들에서 다루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죄들을 말하려는 의미가 아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지각이 있어 그것을 통과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요점은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우리의 기질, 우리의 가식 등—으로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다루실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몇몇은 매우 날카로운 두뇌를 갖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두뇌의 날카로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섭렵하여 더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오직 죽은 지식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나이든 자매는 아마도 집회의 뒤에 앉아서 많은 말씀에 대한 교육도 없지만 주님께 속한 어떤 것을 안다. 당신이 목사나 사역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매 앞에 설 때 당신 속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 나이든 자매 속에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당신이 가진 것은 모두 몸 밖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가 날카로운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단순한 사역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실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가 우리의 머리로부터 구원—헬멧이 있는 구원—이 필요한지!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천연적인 능력은 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것은 밖으로 버려져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천연적인 힘, 우리 자신의 천연적인 힘의 중추가 부숴지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 그것은 몸과 아무 관련이 없다. 당신이 그것을 볼 때, 동시에 지속될 수 없고, 그것이 있을 장소가 없고, 그것은 제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한번 더 통과하기를 요구하고 싶다. 주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 줄 것을 구한다. ‘주여 이 시대와 대한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몸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바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버려야 한다. 십자가는 나를 몸으로 곧장 가리키며, 십자가는 몸이 천연적이고 아담에 속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계속해서 찢어 내린다. 주님을 찬양하라, 나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주님안에 있을 곳이 없다. 내가 전부 제하여진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아무런

자랑할 거리가 없다. 만약 우리가 자랑스럽다면,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나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있을 장소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많이 생각할지 모른다. 우리는 자신감 있고, 자부심이 있고, 너무나도 많이 주제 넘고 뻔뻔스러울런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것도 그곳에 있을 수 없다. 십자가는 역사하여야 한다. 그것은 매우 많은 대가를 치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생명의 바로 그 원천을 만질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매우 소중히 생각하여 움켜쥐고 있는 것을 만질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그것이 없어져야 하는 것을 본다. 그것이 몸이다.

☞ ☞ ☞ ☞ ☞ **수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고린도전서 12:14, 18-19**

- 14.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 19. 만일 다 한지체 뿐이면 몸은 어디뇨

📖 **에베소서 4:15**

-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아무도 자유로운 입장이 아님 - No Free-Lancing**

그리고 개인적인 지체로서 단지 자기 혼자인것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당신의 움직임에 대한 전체적인 의문을 발견하게 된다. 몸 안에서는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자’가 없다. 몸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면, 내 손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야 한다. 만약 내 팔을 움직이면, 내 손가락이 가만히 있거나 개별적인 경로를 취할 수 없다. 몸 전체가 머리의 움직임에 반응해야 한다. 나는 내가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인 것을 볼 수 있는 곳에 와야 한다. 나는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그것이 몸에 관한 의문이다. 모든 동작이 몸을 바탕으로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개별적인 것은 없어져야 한다. 다른 지체들을 기다려야 한다. 다른 지체들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하나님과 같이 가고 여러분의 형제들과 함께 해야만 한다.

그것이 모든 다른 머리의 지위에 대한 의문들을 진정시킨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다른 머리의 지위에 대한 의문은 몸에 손상을 주게 된다. 그것은 예수的主(主)된 지위를 뒤집는 것이다. 보좌를 버린 것은 기름부음 받은 자이며 다른

이가 그것을 취하였다. 그것이 다윗에 대항한 사울이다.

☞ ☞ ☞ ☞ ☞ 목요일 ㄹ ㄹ ㄹ ㄹ ㄹ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고린도전서 11:3上

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오, ...

📖 골로새서 1:18-19

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사울 대(對) 다윗

사울이 나타내는 것은 단순히 이것-조직된 것, 사물의 체계,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 대항하는 것이다. 다윗의 적으로 두 적 있다. 한편으로 골리앗과 그 아래 있는 블레셋 사람들-외부로 부터의 적-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울-내부로부터의 적-이다. 사울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참전했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둘 다 다윗을 보좌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사울의 특징은 그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위에 머리와 어깨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예외적 위치의 사람이다. 그는 신성에 대항하는 사람의 두뇌, 사람의 관념, 사람의 생각을 대표하며, 하나님을 대항하여 사람들이 선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표한다. 그것이 사울이다. 보좌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자를 끌어내리고 있다.

그러나 다윗이 돌팔매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날렸던 날이 왔다. 그는 사울에게 돌을 날리지 않았으나, 골리앗의 머리에 돌을 맞힌 날로부터 사울의 머리는 모든 의지와 목적들로 맞았다. 사울의 능력은 쇠퇴해졌다. 사울의 권력은 골리앗이 죽은 바로 그날 사라졌다. 골리앗을 친 돌은 사울의 머리에도 사망을 날렸다. 우리가 현재의 여러가지 체계를 대항해서 직접적 공격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육체와 피를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사망의 타격이 우리의 적, 보이지 않는 자, 영적인 자, 외부에 있는 자에게 다뤄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가 처리 받았을 때 사울의 권력이 이미 계수된 것을 발견할 것이다. 다른 모든 우두머리 직분은 사라져야 하고, 다른 모든 왕들도 사라져야 한다. 보좌는 다윗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시는 것이다.

**📖 로마서 6:8**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 Colossians 3:23-24**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24.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가 됨**

내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몸으로 인도할 것이다. 한가지 나를 당혹케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 주장한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드렸다고 주장한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있던 곳에 있으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몸을 믿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옛사람은 없어져야 하고, 천연적인 사람은 제하여져야 하고, 아무것도 남을 수도, 지킬 수도 없다고 강조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그것들이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발견하지 못한다.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말만 하고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것을 주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통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다루심들이 몸의 관점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본다. 주님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제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계시며, 기능을 가진 몸의 지체들로 만드신다. 주께서 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속한 것은 그분의 몸의 어떤 부분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소서.

**📖 골로새서 1:10-12上**

10.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뎌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에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추구 자료 ◆

(주) 위 글은 워치만 니의 「열두 광주리 가독히」 중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에서 인용하였습니다.

## 제 3 부: GTA 권속 교통

### 1. 기도의 부담

1. Gr. 6의 복음 집회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이 집회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십시오.

### 2. 소식 및 안내

#### 기타 안내

a. 주일집회 메시지 비디오: [www.churchintoronto.org](http://www.churchintoronto.org)에서 매 주일 집회 메시지 비디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집회 시간 및 집회소 안내】

Lord's Table	All Halls	Sunday, 10:00 AM	Sheppard Hall	671 Sheppard Ave. E., Toronto, ON M2K 1B6 (416) 221-7610
Young People	Sheppard	Saturday, 7:30 PM	Cecil Hall	24 Cecil St., Toronto, ON M5T 1N2 (416) 977-5588
College	Cecil	Friday, 7:30 PM	Greina Hall	7 Greina Ave., Toronto, ON M4A 2H5 (416) 757-7117
Grade 6	Greina	Saturday, 7:00 PM	자매집회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한국어 자매 집회)
Prayer Meeting	Sheppard/Greina	Tuesday, 7:30 PM	소그룹1	매주 수요일 오후 6:00시 (한국어 가정 소그룹1)
	Cecil	Tuesday, 7:00 PM	소그룹2	매주 목요일 오후 6:00시 (한국어 가정 소그룹2)
Web Page	<a href="http://www.churchintoronto.org">www.churchintoronto.org</a>		Web Page2	<a href="http://www.thechurchintoronto.ca">www.thechurchintoronto.ca</a>

(이 아침부흥지는 영어 아침 부흥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및 한글 아침 부흥지는 [www.thechurchintoronto.ca](http://www.thechurchintoronto.ca)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